

2021년 1월 2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하락 '빌미'를 찾아 쏟아낸 매물로 급락

시보금리 급등으로 긴축 이슈 부각, 게임스탑 투기성 매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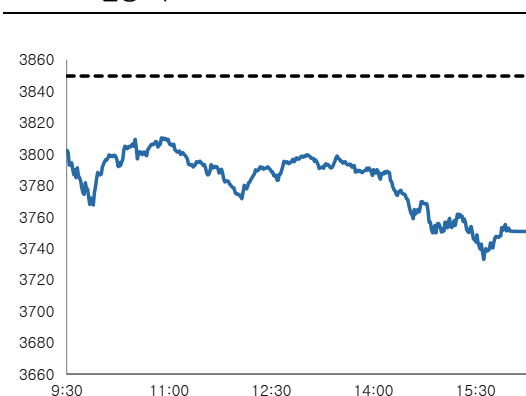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중국 긴축 우려, 기업 실적, FOMC

미 증시는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결과와 투기성 거래,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자 매물을 쏟아내며 하락. 그러나 이는 지난 2013년 사례처럼 일시적인 현상일 뿐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음.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예상과 다르지 않는 부양책 지속 기조를 언급 했으나 매물이 확대. 시장은 그 이상을 바랬기 때문(다우 -2.05%, 나스닥 -2.61%, S&P500 -2.57%, 러셀 2000 -1.91%)

2013년 5월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언급에 이어 6월에는 중국의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자 시보금리가 급등하며 지수 변동성이 확대. 당시 조정은 일시적이었는데 경기 회복과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런 가운데 지난 해 11월 인민은행은 더 이상 물줄 쏟아 붓지는 않겠다고 언급하고 12월에도 21년에는 신용 증가세를 점차 감속시킬 것이라며 긴축 신호를 발표. 여기에 지난 18일에는 올해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며 긴축 우려를 완화 시켰으나 이번 주 들어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자 시보금리가 급등하며 긴축 우려가 재 부각. 이 소식에 지난 26일 한국과 홍콩이 2%대 하락하기도 하는 변동성을 키웠었음. 물론 유동성 이슈가 불거지자 인민은행이 즉각적으로 부양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하나의 빌미가 되어 부담은 지속.

한편, 게임스탑(+134.84%) 등 개별 종목 중심으로 투기적 매매가 확대되는 등 증시 체질 또한 전체적인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 정당한 기업가치 보다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투기적인 매매는 종목 변동성 확대를 야기시킬 수 있어 부담. 이런 가운데 연준은 FOMC를 통해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 해졌다고 발표해 여전히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 그러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부추겼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해 재차 낙폭 확산. 더불어 시장은 파월 연준의장에게 더 많은 부양책을 시사하는 부분을 기대 했으나 과거와 다르지 않은 발언을 한 점도 낙폭 확대 요인. 결국 시장은 하락 '빌미'를 찾은 가운데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은 모습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락률	Close	D-1	지수종락률	Close	D-1
KOSPI	3,122.56	-0.57	홍콩항셍	29,297.53	-0.32
KOSDAQ	985.92	-0.81	영국	6,567.37	-1.30
DOW	30,303.17	-2.05	독일	13,620.46	-1.81
NASDAQ	13,270.60	-2.61	프랑스	5,459.62	-1.16
S&P 500	3,750.77	-2.57	스페인	7,852.70	-1.41
상하이종합	3,573.34	+0.11	그리스	743.49	-2.77
일본	28,635.21	+0.31	이탈리아	21,662.73	-1.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17%

보잉(-3.97%)은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과 정상화 지연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했으나 아메리칸 에어라인(+6.63%)은 공매도 청산 이슈가 부각되며 상승했다. 스타벅스(-6.51%)는 미국 동일매장판매가 5%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AMD(-6.20%)는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에도 장중 한 때 9% 급락하기도 했는데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4.98%)도 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으며, 이는 마이크론(-5.56%), 브로드컴(-4.13%) 등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을 야기 시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17% 하락했다.

한편, 공매도 관련 헤지펀드가 청산했다고 발표하자 게임스탑(+134.84%)은 폭등 했다. 베드배스앤비온드(+43.45%)는 물론 AMC 엔터테인먼트(+301.21%)도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이런 가운데 MS(+0.25%)는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 출발 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로 그 폭을 축소 했다. 알파벳(-4.67%), 넷플릭스(-6.88%) 등도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2.14%)는 예상을 소폭 하회한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4% 내외 급락 중이며 애플(-0.77%)은 양호한 실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3.51%)은 개인 정보 이슈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시간 외로 상승에 성공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18%	대형 가치주 ETF(IVE)	-2.27%
에너지섹터 ETF(OIH)	-0.79%	중형 가치주 ETF(IWS)	-2.42%
소매업체 ETF(XRT)	+12.03%	소형 가치주 ETF(IWN)	-1.19%
금융섹터 ETF(XLF)	-2.95%	대형 성장주 ETF(VUG)	-2.56%
기술섹터 ETF(XLK)	-1.89%	중형 성장주 ETF(IWP)	-2.8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36%	소형 성장주 ETF(IWO)	-2.42%
인터넷업체 ETF(FDN)	-3.02%	배당주 ETF(DVY)	-1.71%
리츠업체 ETF(XLRE)	-1.28%	신흥국 고배당 ETF(DEM)	-1.54%
주택건설업체 ETF(XHB)	-1.8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79%
바이오섹터 ETF(IBB)	-3.02%	미국 국채 ETF(IEF)	+0.12%
헬스케어 ETF(XLV)	-3.04%	하이일드 ETF(JNK)	-0.31%
곡물 ETF(DBA)	-0.36%	물가연동채 ETF(TIP)	-0.03%
반도체 ETF(SMH)	-4.88%	Long/short ETF(BTAL)	+1.6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03.22	-1.39%	-8.25%	+6.09%
소재	445.62	-3.00%	-6.70%	-0.72%
산업재	721.47	-2.04%	-4.86%	-3.17%
경기소비재	1,330.20	-3.13%	-2.55%	+2.64%
필수소비재	669.80	-1.80%	-0.69%	-3.39%
헬스케어	1,332.42	-3.05%	-3.56%	+2.23%
금융	481.67	-2.94%	-6.14%	-0.43%
IT	2,314.41	-1.92%	-0.07%	+0.76%
커뮤니케이션	220.03	-3.82%	-2.34%	-0.78%
유틸리티	313.98	-2.69%	-2.22%	+0.39%
부동산	230.60	-1.39%	+0.52%	+2.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시보 금리 및 외국인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3.65% MSCI 신흥 지수 ETF 는 2.78%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09.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중국의 긴축 우려와 미-중 마찰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자 고점 대비 2% 가까이 하락 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주식시장은 실적 호전 등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들 조차 하락 했다. 중국의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일부 공매도 관련 소기업들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패닉 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요 증시 중 연초 대비 8.7% 상승해 그 폭이 가장 컸던 KOSPI 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 상승해 왔던 글로벌 주식시장이 중국 발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전일 중국 인민은행이 선불리 긴축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 심리를 안정 시켰고, 지난 2013 년에도 일시적인 조정이었을 뿐 결국은 기업 실적과 경기 회복 기대 속 재차 상승세로 전환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장중에 발표되는 중국 시보금리의 움직임과 함께 오늘 발표되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매우 적당해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 했으나 예견된 내용이라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매물 소화 과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위험자산 축소

12 월 미국 내구재 수주는 예상(mom +1.0%)을 하회한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운송을 제외한 수치는 전월 대비 0.7% 증가해 예상(mom +0.5%)을 상회했다.

1 월 스테이트 스트리트 지수는 전월(104.5) 보다 둔화된 100.7 로 발표되었다. 기관들의 심리 지표인 이 지수는 기준선이 100 이며 이상이면 포트폴리오에 위험자산이 많은 것인데 이날 발표된 수치를 보면 위험자산 축소가 나오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지역이 7.3p 하락한 96.0 으로 급격하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으나 유럽은 7.1p 상승한 94.8, 아시아는 3.1p 상승한 115.9 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10년물 국채금리 장 중 한 때 1% 하회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주식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 주 원유 재고가 990 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 및 백신 접종 난항 등 악재성 재료가 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연준은 FOMC 를 통해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 하다고 발표 했고,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관련 추측은 시기 상조라고 언급했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4%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여타 신흥국 환율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악화되며 10 년물 국채금리가 한 때 1% 를 하회하기도 했다. 한편, 연준은 FOMC 를 통해 경기 회복세가 완만해지고 있다고 주장 했고, 파월 연준의장은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정당하다고 언급 했으나 영향은 제한되었다.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관련 추측은 시기상조 라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영향은 제한 되었다.

금은 FOMC 를 기다리며 달러 강세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도 달러 강세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3% 하락 했다. 곡물가격은 달러 강세 불구 대두와 옥수수는 상승을 밀은 하락하는 등 혼조 양상을 보였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2.85	+0.46	-0.86	Dollar Index	90.585	+0.46	+0.12
브렌트유	55.81	-0.18	-0.48	EUR/USD	1.2111	-0.40	+0.04
금	1,848.90	-0.32	-1.14	USD/JPY	104.1	+0.46	+0.54
은	25.389	-0.58	-1.46	GBP/USD	1.3692	-0.32	+0.28
알루미늄	1,992.00	-1.39	+0.58	USD/CHF	0.8887	+0.20	-0.11
전기동	7,825.00	-2.29	-2.73	AUD/USD	0.7661	-1.11	-1.11
아연	2,583.50	-2.75	-5.30	USD/CAD	1.2806	+0.88	+1.35
옥수수	534.00	+0.33	+2.30	USD/BRL	5.4112	+1.10	+1.94
밀	658.25	-1.05	-1.42	USD/CNH	6.4976	+0.38	+0.56
대두	1,374.75	+0.33	+0.38	USD/KRW	1104.40	-0.19	+0.37
커피	125.50	+0.80	+0.24	USD/KRW NDF1M	1109.15	+0.63	+1.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009	-2.54	-7.09	스페인	0.072	0.00	-0.20
한국	1.762	-0.50	+6.00	포르투갈	0.018	-0.20	-0.30
일본	0.049	+1.00	0.00	그리스	0.671	-0.20	+3.30
독일	-0.546	-1.30	-1.70	이탈리아	0.654	+0.80	+3.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